

‘성문옥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 뇌관되나

〈광주시 감사위원장〉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백...서장 의견 달아 기소할 것”

검찰 “관련법령 따라 적법하게 수사 지휘중”... 대선정국 주목

성문옥(57)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장의 노조비 납부파악 사건(광주일보 2016년 5월16일자 6면·2017년2월 22일자 6면 등)이 대선국면에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뇌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성 감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경찰의 계획이 수사권을 쥔 검찰에 의해 1년 가까이 제동이 걸리자 일선 경찰들이 이 사건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 ‘경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사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지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서부경찰청은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 감사위원장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수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사실상 ‘협이 없음’ 처분을 중용하고 있는 탓에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 ‘협이 명백한 만큼 반드시 기소가 필요하다’는 관할 경찰서장 의견도 첨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 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노조 조직전환 투표 과정에서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를 가려내 압박하려고 광주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소독공제 내역을 공개요구하고 일부 내역을 통보받은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요, 성문옥 감사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광주시 공무원 노조 측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경찰은 성 감사위원장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입비 소독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최소 4차례 이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 권의를 올렸다. 감사위 공무원,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성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감사위의 노조비 납부내역 확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정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차례 기소의견 송치 의견을 낸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협이없음 처리를 중용하면서 1년 가까이 사건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노조비 납부내역 파악 행위는 법에서 정한 민감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받아주지 않고 보완지시만 내리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청 수사국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기소의견 송치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 감사위원장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권 행사 내용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도 ‘경찰의 비합리적인 수사지휘 사례’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 감사위원장 주도로 진행된 광주시 공무원 노조비 납부내역 파악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행위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단 보완수사 지시로 수사 착수 1년이 가까워지자 공무원노조는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가출 청소년 신고 않고 동거 40대男 구속

실종아동 관련 법률 첫 적용

광주북부경찰청은 가출한 10대 청소년과 동거한 40대 남성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모(42)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A(16)양에게 광주광산구의 한 원룸을 얻어준 뒤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은 A양을 처음 만났으며, ‘가출하

고 싶다’는 A양에게 원룸을 얻어준 뒤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주씨가 자신의 나이를 31살로 속이고 A양을 만났으며 A양이 임신을 하자 낙태 시술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주씨는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근거로 주씨를 찾아오자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A양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대표폰을 이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씨가 ‘A양과 사귀는 사이라 동거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주씨는 A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6개월간 동거한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조건만남 여성 지인 상대 강도짓

서부경찰, 20대 5명 검거

성매수 한 뒤 조건 만남 여성의 지인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7일 장모(20)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모(20)씨 등 일당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선술배 사이인 장씨 등은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광산구 한 모텔에서 2개 객실에 잇따라 침입해 양모(23)씨 등 6명을 집단폭행하고 현금 19만4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 2명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양씨를 은행으로 끌고 가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18)양을 만나 관계를 가진 뒤 A양의 친구 등 지인들이 바로 옆 객실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강도짓을 계획했다.

이후 일당 5명을 모델로 불러들여 A양 지인 6명을 잇따라 제압, 강도짓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은 은행까지 끌려간 양씨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감시망을 뚫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쭉났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산강서 40대 변사체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 영산강에서 40대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1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영산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행인이 A씨(43)가 숨진채 물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

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15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오다 지난 10일 집을 나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협담한 이웃 흥기 위협 50대

남부경찰, 테이저건 쏘 체포

흥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자신을 협담한다는 이유로 이웃들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안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20분께 남구 월산동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 배모(여·42)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안 열면 연질질 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분 뒤에는 배씨 옆집에 살고 있는 김모(45)씨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흥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씨의 대치하다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한 끝에 그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들이 자신을 협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지역 초등 돌봄교사들이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본관 출입을 막고 ‘돌봄교사 공개채용’ 절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돌봄교사 공채 거부...광주교육청 점거 농성

교육청 직원 일부 경미한 부상

초등 돌봄교사들이 17일 광주시교육청의 ‘돌봄교사 공개채용’ 절차에 반대하며 교육청 본관 출입을 막고 2시간30여분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돌봄교사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부터 광주시교육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모두 막고 교육청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일부 직원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돌봄교사들은 이날 예정된 인사위원회가 취소될때까지 2시간 넘게 교육청 내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인사위원회는 애초 이날 공무직 전환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돌봄교사들의 농성으로 취소됐다.

돌봄교사들은 “공채 대신, 기존 돌봄교사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조리와 형평성 등을 들어 공무직 전환을 위한 공개 채용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전체 돌봄교실 286곳 중 시군간 위탁 운영 방식으로 이뤄져온 134곳을 직영체제로 바꾸고 공개 채용을 거쳐 교사 13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키로 했었다. 하지만 돌봄교사들은 공채가 진행되면 오랜 기간 시험 준비를 해온 젊은 돌봄교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토바이 몰던 70대 할머니

담양서 배수로에 빠져 숨져

17일 오전 9시30분께 담양군 대전면 황성리 한 마을 입구쪽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김모(76·여)씨가 몰던 사륜 오토바이가 1m 높이 배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김씨가 오토바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행 중 배수로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방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업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방 최고) 광양시청 / 광양신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 전방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1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아울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점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운전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